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배종태*

Abstract

In spite of increasing importance of entrepreneurs for successful new venture creation, structured educational programs for entrepreneur development are very limited in Korea. Based on the survey of existing academic programs and interviews with entrepreneurs, this study presents a new education system for entrepreneurial management and new venture creation.

Specifically, seven venture educational programs are suggested. As degree programs, i) new venture interdisciplinary program and ii) venture MBA program are presented. Also, iii) advanced venture management program, iv) venture capitalist training program, and v) potential entrepreneur training program are suggested as non-degree programs. In addition, special and supporting programs such as vi)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seminar and vii) new venture forum are explained. Finally, some examples of typical entrepreneurial management courses are present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I. 서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벤처기업육성을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이 단지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여러 대기업들에서 사내벤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나 사내벤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가, 벤처경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에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선보이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나아가 이미 창업한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창업자의 역할변화 및 이에 따른 교육도 매우 필요하나 이에 대한 특화된 교육과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몇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교육체계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정에 따라 - 창업전, 창업, 창업후 - 각 단계에서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벤처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 1 기업가정신과 창업여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는 약 200년전 기업가들의 위험감수를 강조한 리차드 드 칸틸런(Richard de Cantillon)이 처음 사용한 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하나의 학문분야로까지 발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및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이제는 미국내에만도 1,000개이상의 대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을 선도해온 뱁슨대학은 창업과정에 맞추어 아예 경영학 교육과정 전체를 재구성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이 다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창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이후 미국에서만도 매년 70만개에서 백만개의 기업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러한 창업붐은 정보사회로의 진전, 수요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한 급속한 기술발전, 기업가정신의 확산,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 생성 등으로 인해 첨단소기업의 창업이 쉬워지고 있는 산업여건에 힘입은 바 크다(Bryant, 1996)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사업(home-based business)을 하는 소기업의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주력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많은 벤처기업 성공사례에 고무되어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창업붐을 하바드경영대학원의 Timmons(1994)는 소리없는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2. 2 기술창업과정과 기업가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발전하려면 3가지 핵심요소, 즉 ① 기업가/창업팀(founders), ② 기회(opportunity), ③ 자원/시스템(resources)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의 벤처사업(venture project) 추진과정에서도 이상의 3가지 핵심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기업가”와 “좋은 기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수한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행태적 측면에서는 ① 사업에 대한 헌신/몰입(Commitment)과 확고한 결의, ② 기회에 대한 집착, ③ 위험·모호성·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④ 창의성·자립심·적응력, ⑤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 ⑥ 리더십, ⑦ 현실감과 유머감각 등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을 하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미리 배우고 준비하여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잘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혁신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인이 이러한 경영지식을 다 가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Timmons, 1994). 그리고 이러한 여러 역량들은 타고나기 보다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기업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벤처기업경영을 농사에 비유하자면, 기업가는 농부에, 기회는 씨에, 자원/시스템은 밭에 비유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여건 등은 햇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야말로 벤처 기업성공의 핵심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기업가의 경험과 능력을 중요시한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창업자가 기술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창의력 및 혁신능력도 높고, 경영기술/노하우 및 네트워킹 능력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가(entrepreneur)”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공계 출신 창업자들이 발명가로 시작하여 기업가로 발전하지 못해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만 아는 발명가도, 경영만 아는 관리자/행정가도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벤처기업에는 진정한 기업가가 필요하고, 기업가는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많은 부문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가를 육성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영기술/노하우 및 네트워킹 능력	
		낮음	높음
창의력 및 혁신능력	높음	발명가	기업가
	낮음	홍행사	관리자/행정가

[그림 1] 기업가의 영역

대기업에서도 사내벤처를 통해 많은 사내기업가가 배출되어야 한다. 사내기업가 (intrapreneur)란 “조직내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혁신을 창출하는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실천력이 있고 꿈을 가진 사람”(dreamers who do)을 말한다. 기업가와 사내기업가는 오직 기회를 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준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기업가와 사내기업가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 과 함께 제반 벤처관련교육을 통해 이들의 창업준비과정 및 기업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이러한 계획된 준비의 기간이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교육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2. 3 대학의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교육

대학에서의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 교육은 크게 ① 학위과정의 정규 프로그램과 ② 비학위/지원과정의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 프로그램은 기존의 경영대학이나 공과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벤처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련의 교과목들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뱀스칼리지는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창업전·창업시·창업후의 3단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였고, 현재 필수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 분야의 교과목만도 12개를 개설하고 있다. 뱀스칼리지의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 목록은 < 표 1>과 같다.

< 표 1> 뱀스칼리지의 기업가정신 분야 개설 교과목

과정	구 분	교 과 목 명
학사 과정	필수과목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shman Management Experience - 각 팀별로 사업계획서 준비 - 각 팀별로 최고 3,000불을 주어 실제사업을 수행하게 함.
석사 과정	필수과목 (3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s) ○ Managing Growing Businesses ○ Financing Entrepreneurial Ventures
	선택과목 (9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chising, Licensing, and Distributorships ○ Entrepreneurs in Organizations ○ The Social Entrepreneur ○ Family Business Management ○ Business and Tax Planning ○ Management Buy-Outs and Buy-Ins (MBOs AND MBIs) ○ Marketing for Entrepreneurs ○ Venture and Growth Capital: Theory and Practice ○ Entrepreneurial Field Studies

주 : 1) 1993년에 모든 학사과정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포함됨.

한편 하바드경영대학원에서는 1946년 이래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해오고 있다. 현재 “기업가적 경영”(entrepreneurial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5개 교과목이 대표적이다.

- 1) Entrepreneurial Finance
- 2)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Organization
- 3)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 4)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 5) Entrepreneurial Marketing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는 MBA 과정의 하나로 “신상품 및 벤처개발”(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필수과목은 2개를 포함하여 11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과대학과 연계하여 5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고, 연구논문도 1과목으로 인정된다. MIT의 벤처경영 관련 교과목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MIT의 벤처경영분야 개설 교과목

과정	구분	교과목명
경영대학원 개설 과목	필수과목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Enterprises ○ Entrepreneurship Lab (internship course)
	선택과목 (9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Seminar in Financing New Ventures ○ The Manager's Legal Function ○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 New Product Development ○ Marketing Strategy ○ Special Seminar on MIT Technologies with New Venture Potential ○ Entrepreneurship Without Borders ○ Global Entrepreneurship ○ ProSeminar in 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
	공과대학과 공동개설 과목 (5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ntions and Patents ○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Engineering. ○ Preliminary Venture Analysis and Personal Entrepreneurial Strategy ○ Starting and Running a High Tech Company ○ The Nuts and Bolts of Business Plans
	연구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sis

주 : 이와 아울러 사업계획서 경진대회(MIT \$50K Entrepreneurship Competition)도 매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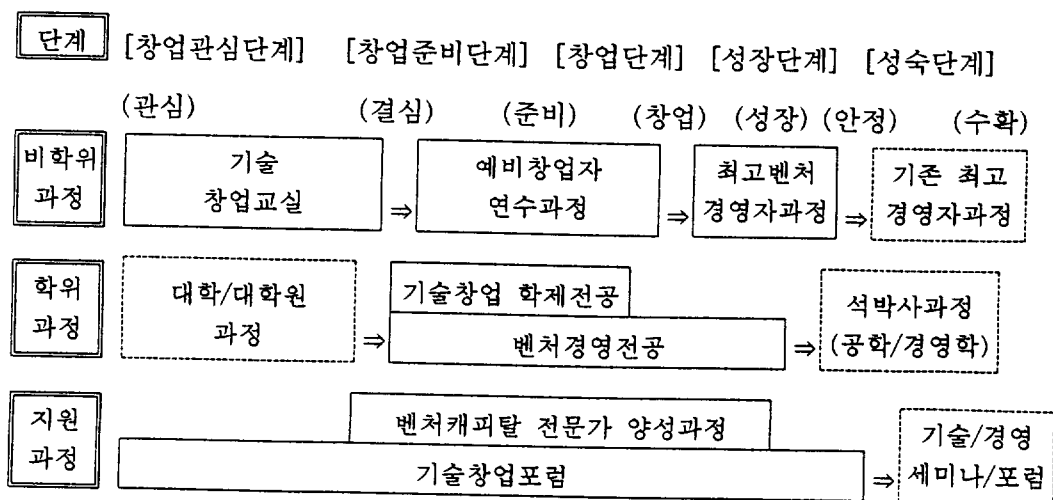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쿠프만재단(Kauffman Foundation)에서는 특히 창업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벤처분야 우수교육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미국창업보육센터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NBIA)에서도 창업자와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위한 실무적인 소개책자들을 다수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등 학술지를 통한 벤처경영분야의 연구도 최근 활기를 띠고 있으며, 실무적인 벤처전문지로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Inc와 Red Herring이 유명하다.

Ⅲ. 창업교육모형

3. 1 창업교육모형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은 단계를 두고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정을 창업관심단계,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 및 수확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단기/지원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학위과정으로는 ① 기술창업학제전공, ② 벤처경영전공을 제안하고, 비학위과정으로는 ③ 최고벤처경영자과정, ④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단기/지원과정으로 ⑤ 예비창업자 연수과정, ⑥ 기술창업교실, ⑦ 기술창업포럼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 부분의 교육 체계도는 [그림 2]와 같다. 각 프로그램들간의 관계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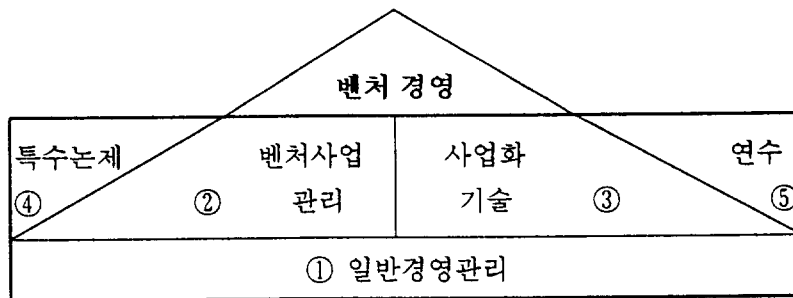
[그림 2]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 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표 3〉 창업교육유형

대상 \ 기간	장기 (1년이상)	중기 (1개월 - 1년)	단기 (1개월 이하)
예비창업자	1) 기술창업학제전공	5) 예비창업자 연수과정	6) 기술창업교실
예비창업자 및 기존창업자	2) 벤처경영전공	4)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	7) 기술창업포럼
기존창업자	-	3) 최고벤처 경영자과정	-

한편 창업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하면 크게 다음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 1) 일반경영관리 : 경영전략, 일반경영이론, 리더십 이해 등
- 2) 벤처사업관리 : 기업가정신, 변화관리, 네트워크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
- 3) 사업화기술 : 전문기술별 사업화기술 연구 등
- 4) 기술창업 특수논제 :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 사내벤처 등
- 5) 벤처실습 및 연수 : 국내외 기업연수(internship), 사례분석 등



[그림 3]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 교육 프로그램 내용

3.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검토와 국내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곱가지 형태의 벤처경영자 및 기술창업자, 예비창업자, 경영학도들을 위

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고찰, 내용 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면담,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의견 수렴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외국관련기관들의 간행물들을 통해 외국자료를 수집하였다.

IV. 창업교육 프로그램 설계

4. 1 기술창업학제전공

기술창업은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며, 창업자 개인의 입장에서 삶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준비를 비정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과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규학위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예비창업자들이 기술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창업의지가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학제전공”(New Venture Interdisciplinary Program : NVIP)을 개설할 수 있다.

기술창업학제전공은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경영 및 창업교육>과 사업아이디어가 될 기술부문에 대한 <기술사업화교육>을 실시하는 정규석사과정 교육프로그램이다. 공학부, 이학부, 경영학부가 참여하여 학제전공으로 운영하며, 각 학생들의 집중분야(area of concentration)에 따라 공학석사, 이학석사, 또는 경영학석사를 수여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택할 수도 있다.

기술창업학제전공의 위상은 대학의 “학과”에 준하며, 정원은 20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40명규모를 넘지 않게 한다. 학생들은 물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 학제전공을 택할 수 있다.

기술창업학제전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제창업예비과정으로 학술적인 탁월성과 실제적인 적용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교육 석사학위 프로그램이다. 이 학제전공에서는 외국대학, 실리콘밸리 등 외국과의 연계교육망도 구축한다.

본 학제전공의 교과과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강의 7과목, 실습 3과목, 논문 2과목 등 총 12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일반적인 석사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기존학과학생이 부전공으로 본 학제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창업과정 3과목과 경영기초, 기술기초 각 1과목씩 총 5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본 학제전공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6개부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① 경영기초 : 2과목 (회계/조세, 경영학개론)
- ② 기술기초 : 2과목 (정보통신개론, 신기술동향)
- ③ 창업과정 : 3과목 (기업가정신과 창업과정, 자원관리, 창업후 기업경영)
- ④ 설계실습 : 2과목 (설계 I, 설계 II)
- ⑤ 창업실무 : 1과목 (국내외 현장실습)
- ⑥ 연구논문 : 2과목 (사업계획서 초안작성, 사업계획서 최종완성)

기술창업학제전공은 하나의 독립된 학과이므로, 학과장에 해당하는 전공책임교수를 임명하고, 3-4인의 전임교수를 둔다. 강의 및 논문지도 등에서는 기존의 학과 교수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학제전공 운영회의를 설치하여 학과교수회의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들어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이 시행하는 제반 사업들에 기술창업학제전공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2 벤처경영전공

벤처경영전공(Venture Management Program: Venture-MBA)은 신규창업 및 사내벤처, 창업컨설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과정의 정규 경영학석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는 1,000개 이상의 우수 경영대학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 하바드경영대학원의 경우, MBA 학생들의 20%가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재학생의 90%가 향후 자신의 사업을 하기위해 경영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IT 경영대학원(Sloan School)의 “신상품 및 벤처개발”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KAIST에서도 향후 MBA 과정의 하나로 벤처경영트랙(Venture Management Track)을 개설할 예정이다.

벤처경영전공(Venture-MBA)에서는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연구 6학점 등 총 51학점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며, 전공필수과목으로는 경영통계분석, 경영시스템과 리더

십, 신기술동향, 기술창업론, 회계 및 경영분석, 벤처캐피탈, 경영조직과 기업성장관리 등 7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아울러 연구논문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로 대체한다. 또한 전공선택과목은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

벤처경영전공의 학생들은 <표 4>의 과정을 따라 학기별로 교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 2년차 여름학기에는 실리콘밸리 등에서 하계 해외연수를 하게 된다.

〈표 4〉 벤처경영전공의 교과목 이수요건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통계분석 ○경영시스템과 리더십 ○신기술동향 ○회계 및 경영분석 ○마케팅 ○정보통신시스템 ○정보처리실습 ○관리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회계 ○벤처경영특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론 ○경영조직과 기업성장관리 ○경영의사결정론 ○기업재무정책 ○생산경영: 전략과 시스템 ○기술경영 및 전략 ○하이테크마케팅 ○컴퓨터기술개론 ○정보통신개론 및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커뮤니케이션 ○경영자문실습
	5과목 (15학점)	2과목 (6학점)	4과목 (12학점)	2과목 (3학점)
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캐피탈 ○신상품경영론 ○전략경영 ○사내벤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경영 실습 (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게임 ○연구(사업계획서) 	-
	3과목 (9학점)	1과목 (3학점)	1과목 + 논문 (9학점)	(총 51학점)

주 : 굵게 표시된 교과목은 전공필수를 나타냄.

특히 4-5주간의 해외하계연수에서는 미국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주식시장 등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과 연계하여 미국 문화 및 사회의 이해, 최신경영동향, 국제경영, 커뮤니케이션 등도 함께 공부한다. 아울러 2년차 가을학기에는 그간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벤처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준비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이 과정은 몇 개의 집중분야로 세분될 수 있다. 예시적인 집중분야로는 벤처기업, 사내벤처, 벤처정책, 벤처캐피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3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최근 벤처기업 열풍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나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으나, 창업후 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급속성장, 인력/자금/관리상의 곤란 등 급속한 외부환경 및 내부여건의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많은 벤처경영자들은 경영지식 및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창업자들은 대부분 전문기술분야의 배경만 가지고 있어 경영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발전에 따라 벤처경영자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최고경영자과정과는 차별화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접하는 제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최고벤처경영자과정(Advanced Venture Management Program : AVMP)을 개설하여, 창업자들에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창업하여 2차 성장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변화관리, 기술관리, 경영관리 등에 대한 경영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들의 경영능력향상을 통해, 창업한 벤처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감각을 심어주며 도산을 방지하여,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 개설대학과 벤처기업들과 연계는 벤처경영교육의 중심체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에 이 과정을 졸업한 벤처기업 경영자들과의 지속적 동반자관계 유지를 통해 학교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설대학 대학원학생들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현장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해 개설대학 석박사과정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만 구성된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교육과정에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영교육 교과과정을 보급하고, 나아가 이공계 출신을 위한 기술창업론, 벤처경영론 등의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이 분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은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3-5개월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벤처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최고경영자교육과정 등과의 “차별화” 및 “특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강조한다.

첫째, 교육대상의 특화이다. 이 과정은 기존기업과는 제반 경영여건이 다른 “벤처기업”

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차별화이다. 이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제적용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론적 바탕위에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상장관리,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경영자의 역할 변화 등과 같은 벤처기업 고유의 문제를 강조한다. 또한 기술특성이 반영된 경영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다룸으로써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중요시하며 토론, 사례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참여적 방법 및 실습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연수 및 외국전문가 초빙을 통해 국제감각을 부여하고, 교육시간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교육수준 및 교육체계의 차별화이다. 벤처경영에 대한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며 벤처경영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와 연계한 일련의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주요교육내용은 벤처경영원리, 벤처변화관리, 벤처경영실습, 벤처경영특강 등 4개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한편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이 과정에서는 각 학기별로 40명씩 교육하여, 연 80명을 배출하도록 한다.

<표 5>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주요교육 내용

영역	특 징	세 부 내 용
벤처 경영 원리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일반경영능력 및 리더십 교육	○경영자의 역할, 전략경영, 비전창출/기업문화, 경영환경, 국제화전략 ○리더십/인간관계, 문제해결방법, 창의성 기법, 프로젝트 관리기법 ○경영기능관리 : 마케팅, 재무, 인력관리, 생산경영, 정보경영, 회계 등
벤처 변화 관리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기업발전단계에 따른 벤처경영자의 역할변화, 요구되는 능력, 조직관리 ○혁신경영, 기술경영, 기회/위기관리, 상장, 외부자원 네트워크관리, 자 원/특허관리 ○주요기술의 변화추세 및 사회변화 등
벤처 경영 실습	실습, Workshop, 해외연수, 논문작성	○경영실습: 국내외 사례, 비즈니스 게임, 주요이슈에 대한 Workshop 등 ○교육참여자간 경험공유, 교류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사업계획서 또는 각자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적용 논문 작성
벤처 경영 특강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특강	○사람, 사회, 자연, 경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높여주는 특강 ○각 분야의 관점에서 벤처경영을 조망하여 벤처기업가의 시야를 넓임.

〈표 6〉 최고벤처경영자과정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영역	세부내용
주요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창업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벤처캐피탈의 임직원 ○ 사내벤처, 벤처기업육성에 관심이 있는 기존기업의 최고경영층 ○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간부급 정부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개설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 봄학기 (4개월; 3월초 - 6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는 5월초 ○ 가을학기 (4개월; 9월초 - 11월말, 1월초 - 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는 11월초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습(80시간) 및 해외연수(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습은 약 4개월에 걸쳐, 매격주 금/토요일에 실시(금요일 오후 5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교육) - 해외연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
강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대학 교수진 및 타대학 관련분야 교수 ○ 국내외 벤처금융전문가, 벤처기업가, 정책전문가 ○ 외국벤처기업 임직원 (예 : 외국벤처기업 한국지사장) ○ 국내외 명사 (경제계, 언론계, 정계, 문화계 인사 등)

4. 4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

벤처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angel), 벤처캐피탈, 주식시장 등 벤처금융부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부문이 미약하여 벤처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벤처기업가, 사업기회도 필요하지만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구축도 매우 필요하며, 이중에서도 벤처캐피탈의 발전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중심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Venture Capitalist Training Program : VCTP)은 벤처캐피탈 전문가가 알아야 할 제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3-5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매주 1회 5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해외현지교육을 포함한 실무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은 개설기관이 벤처캐피탈 회사들과 연계하여 개설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의 주요교육 내용

영역	특 징	세 부 내 용
벤처 기업론	벤처캐피탈 회사의 고객인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과정(벤처기업가, 사업기회, 필요자원) 이해 ○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벤처기업의 성장원리 ○ 벤처기업의 성장과정과 단계별 경영문제 및 자금 소요 ○ 성공적인 벤처기업들의 특성
벤처 캐피탈 투자 기법	벤처캐피탈의 운영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캐피탈의 현황과 문제점, 역할 ○ 벤처사업계획서 심사과정 및 심사기법 ○ 기업가치 평가기법 ○ 벤처기업을 위한 Financing 기법 - 투자조합, 엔젤클럽, 연기금 등 ○ 기업상장 지원 및 투자회수기법 ○ 벤처기업 경영지원 : 투자후 벤처기업관리 등
벤처 투자 실습	실습, Workshop, 해외연수, 논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실습 : 국내외사례, 비즈니스 게임, Workshop ○ 교육참여자간 경험공유, 교류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각자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적용 논문 작성
벤처 캐피탈 특강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의 투자기법 등 ○ 각 분야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을 조망하여 벤처투자자의 시야를 넓힘.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은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에 개강한다. 벤처캐피탈 회사의 심사역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벤처투자가로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대학졸업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각 기별 정원은 40명으로 한다.

4. 5 예비창업자 연수과정

최근의 벤처붐을 타고 정부주도로 많은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창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이 보통 단기간에 걸쳐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과 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선별된 유망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습/연수중심의 심화된 창업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예비창업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비창업자 연수과정(Potential Entrepreneurs Training Program : PETP) 설치를 제안한다. 이 과정은 일반창업교육을 마쳤거나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가능성있는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준비-연수-종합]의 3개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는 경영의 기본과정인 [기획-실행-평가](plan-do-see)의 3단계와 일치한다. 준비단계와 종합단계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연수단계는 우수벤처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수행한다.

예비창업자 연수과정은 예비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선별된 예비창업자들이 각자 2-3개월간 벤처기업 등에서의 실습을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연수대상기업은 처음에는 국내기업으로 시작하되, 점차 그 대상을 외국으로까지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연수과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창업준비단계에 있는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이 대상이 되며, 창업강좌 이수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중에서 선별된다. 또한 창업을 준비중인 첨단기술분야 석박사과정 이수자는 우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 2회 개설되며, 선발인원은 각 기당 20명씩, 매년 40명 내외로 한다. 이 과정의 교육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예비창업자 연수과정의 교육내용

교육 과정		기간	교육 시간	세 부 내 용
준비 단계	집중교육	1주	매일 3시간 (총 15시간)	○ 창업과정 집중교육 ○ 사업아이디어 발표 ○ 연수과정의 활동방향 소개/지도
연수 단계	현장실습	8주	전일제 (Internship)	○ 관련 국내외 벤처기업에 파견 ○ 멘토로부터의 실무경험 전수 ○ 기술 및 시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종합 단계	종합정리	1주	자체정리 및 수시로 교수 면담	○ 개인별로 사업계획서 정리 ○ 교수지도 및 전문가 면담 ○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계		10주		

현장실습 대상기관은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및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우수 벤처기업들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연수기간동안에는 연수기업의 중견관리자 중 한사람을 멘토(mentor)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한 자문 및 후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총 교육기간을 10주로 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연수기간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예비창업자 연수과정에는 이공계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에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6 기술창업교실

기술창업교실(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Seminar : TES)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단기 교육프로그램이다. 그간 KAIST에서 수행해온 기술창업교실이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 교육 수요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술창업교실은 저녁시간에 개설하여, 기술창업이나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및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은 창업과정 및 창업실무, 창업 사례 등이다.

기술창업교실은 지역특성이나 참여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KAIST에서 그간 개최되었던 기술창업교실의 교육내용을 예시적으로 소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기술창업교실의 교육내용

일 시	1교시 (19:00-20:20)	휴 식	2교시 (20:40-22:00)
제1일 (월)	창업사례(I)	Networking Break	기업가정신과 창업과정
제2일 (화)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벤처캐피탈
제3일 (수)	창업사례(II)		사내벤처 및 대기업에서의 벤처경영
제4일 (목)	회계 및 재무제표의 이해		특허관리
제5일 (금)	회사설립 및 조세제도		창업지원제도

4. 7 기술창업포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이나 창업한 기업가들은 여러가지 일들에 부딪히면서 새롭게 알아야할 정보나 지식들을 소개해주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에 입주한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혜택의 하나가 바로 입주기업들간의 정보교류와 경험공유 등 네트워킹이다. 이처럼 창업관련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모임의 기회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에 대한 꿈과 의지를 다지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이미 창업한 사람들에게는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등의 주도로 매월 이러한 토론의 장을 기술창업포럼의 형태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과 테크노파크 등 우수한 벤처관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렌슬리어공과대학(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 RPI)은 벤처기업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RPI 벤처그룹”(Venture Affiliate of RPI : VARPI)을 구성하고, 매월 조참모임의 형태로 벤처자본가, 벤처기업가, 벤처관련 정책담당자,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인사, 특정분야의 경제/기술/경영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며, RPI는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동창회에서 동문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지역에 걸쳐 구역별로 “기업가포럼”(Entrepreneurial Forum)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가포럼에서는 창업을 계획중인 MIT 졸업생 등에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기회를 주어, 선배 벤처기업가 및 벤처자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MIT 동문이 아닌 사람들도 기업가포럼에 참여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협회도 이러한 네트워킹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PI의 VARPI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기술창업포럼(New Venture Forum : NVF)을 제안한다. 기술창업포럼은 통상적인 학회조직처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지역별로 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창업포럼에서는 매월 1-2회씩 기술창업과 관련되는 주제를 정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컨소시엄 또는 회원제로 하여, 포럼이 참여자들에게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기술창업포럼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또는 벤처기업관련 주제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벤처기업의 성장관리와 위기관리: 벤처기업가는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가?
- 2) 실리콘밸리의 벤처모형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 3) 창업을 할 때는 내 돈으로 해야하나, 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가?
- 4)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왜 잘 안 되었으며, 극복방안은 있는가?
- 5)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자금조달(financing)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 6) 벤처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 7)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은 무엇인가?

기술창업포럼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고, 이미 창업한 기업가들은 정회원, 예비창업자들은 준회원으로 한다. 아울러 기술창업포럼은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NBIA) 등과의 연계도 추진할 수 있다.

4. 8 프로그램 운영상의 고려사항

지금까지 기술창업과정의 단계를 따라 7가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지원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창업후에 이르기까지 항상 새로운 문제와 고민거리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는 창업과정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각 단계별로 제반 기술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즉 각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들간의 연계성이 기획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제반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성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졸업생들의 창업 활동과 교수들의 창업교육이 활발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과 우수한 강사진의 육성과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창업교육 개발사업도 창업교육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체와 대학, 외국 전문가들의 연계가 중요하다.

V. 벤처경영 교과목의 설계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숭실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강의는 많이 개설되었으나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에 관한 정규 교육과정은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기술창업교육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KAIST에서 개설되는 대학원생 대상의 <기술창업론>과 학부생 대상의 <벤처경영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들을 제시한 것이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창업과정은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며, 창업자 개인의 입장에서 삶 의 진로에 관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준비를 비정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과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벤처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 대학교육에서도 벤처관련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고 제반 활동이 많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대학들의 체질을 바꾸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기술창업론의 주요주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벤처기업 창업과정과 기업가정신	1.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 개관 2. 벤처기업 창업과정 개요 3. 창업과정(I) : 사업아이디어 발굴 4. 창업과정(II) : 기술창업인의 준비 5. 창업과정(III) : 필요자원의 파악 및 확보 6. 기술창업 성패요인	기술창업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공
기술창업실무 : 사업계획서 작성	7.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 8. 사업대상의 선정 : 분석틀 및 사례 9. 사업전략수립 및 제품개발전략 10. 시장/경쟁분석 및 수요예측 11. 신제품 마케팅 및 판매전략 12. 생산 및 서어비스 관련계획 13. 자금원천 및 자금조달계획 14. 회계 및 재무제표의 이해 15. 회사설립 및 조세제도	분야별로 회계사, 세무사, 벤처 금융가 등 외부전문가 초빙

(<표 10> 계속)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술창업실무 : 사업계획서 작성	16. 사업계획서 심사과정 및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현황 17. 기술창업지원제도 18. 경영관리팀과 조직관리 19. 창업후 기업관리 20. 창업전략 및 사내창업	분야별로 회계사, 세무사, 벤처 금융가 등 외부전문가 초빙
사업계획서 발표	○ 팀별로 사업계획서 발표	배점의 60% 차지

<표 11> 벤처경영론의 주요주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가	1. 벤처기업과 벤처경영, 기업가정신 2. 벤처기업 창업과정과 기업가	
벤처경영과정	3. 벤처경영과정(I) : 비전 및 목표설정 4. 벤처경영과정(II) : 기회의 포착 5. 벤처경영과정(III) : 전략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6. 벤처경영과정(IV) : 필요자원조달 및 조직관리 7. 벤처경영과정(V) : 유지관리 및 수확	
벤처마케팅과 첨단기술개발	8. 첨단기술 마케팅의 특성과 기법 9. 첨단기술개발과 전략적 기술경영	
벤처경영 특수논제	10. 사내벤처와 벤처기업의 국제화 11. 벤처기업 성공사례 (초청특강) 12. 실리콘밸리의 교훈	
Term Project 발표	○ 팀별로 벤처기업 성공사례 분석보고서	3-4명이 팀으로 작업

VI. 결 론

6.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기업가, 벤처경영자를 위한 7가지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 프로그램별 내용과 운영상의 핵심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학제전공(New Venture Interdisciplinary Program : NVIP)에서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경영 및 창업교육>과 사업아이디어가 될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교육>을 실시하는 정규석사과정(ME 또는 MS) 교육프로그램이다. 공학부, 이학부, 경영학부가 참여하여 학제전공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복수전공으로 택할 수도 있다.

둘째, 벤처경영전공(Venture Management Program : Venture-MBA 또는VMP)은 신규창업 및 사내벤처, 창업컨설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과정의 정규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KAIST의 기술경영전공과 같은 특수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최고벤처경영자과정(Advanced Venture Management Program : AVMP)은 이미 창업하여 2차성장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3-5개월의 차별화된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운영된다.

넷째, 벤처캐피탈 전문가 양성과정(Venture Capitalist Training Program : VCTP)은 벤처캐피탈 전문가가 알아야할 제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3-5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매주 1회 5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해외현지교육을 포함한 실무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째, 예비창업자 연수과정(Potential Entrepreneurs Training Program : PETP)은 예비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선별된 예비창업자들이 각자 2-3주간 벤처기업 등에서의 실습을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연수대상기업은 처음에는 국내기업으로 시작하되, 점차 그 대상을 외국으로까지 확대한다.

여섯째, 기술창업교실(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Seminar : TES)는 예비창업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단기 교육프로그램이다. 그간 KAIST에서 수행해온 기술창업교실이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 교육 수요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기술창업포럼(New Venture Forum : NVF)에서는 매월 1-2회씩 기술창업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컨소시엄 또는 회원제로 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6. 2 연구의 이론적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및 벤처경영에 관한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술창업의 과정별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의 핵심내용들을 검토/체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의 교육체계 및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실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경영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경영자들의 경영지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KAIST에서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벤처경영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에도 매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6. 3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

벤처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큰나무가 되기까지는 땅과 수분과 햇볕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즉 자본, 전문인력, 경영지원 등 제반 자원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은 인프라 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핵심은 역시 창업자와 우수인력(brain power),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에 있다. 우리의 첨단산업 창업기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제반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적재적소에 올바른 과학기술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하며, 국민의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병렬식으로 동시에 힘겹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는 원료를 넣고 바로 기계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경직된 개념보다는 씨뿌리고 거름주고 기다려 수확하는 농부의 느긋함과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체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술창업, 기업가정신 부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은 더욱 구체화되고 효과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집을 통해 한국형 벤처기업모형과 벤처경영모형, 벤처교육모형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지수, 배종태, "KAIST의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설치계획," 벤처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KAIST, 1997.

백경래, 박상문, 배종태, "신생모험기업의 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제4권, 제1호, 1996.

〈국외 문헌〉

Bryant, Hattie, *Small business today guide to beating the odds*, Prima Publishing, Rocklin, CA., 1996.

Burgelman, R. A.,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 insights from a process study," *Management Science*, Vol.29, 1983, pp.1349-1364.

Cooper, Arnold C. and F Javier Gimeno Garcon, "Entrepreneurs, processs of fo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uship*, Sexton, D. L. and J. D. Kasarda (eds.), PWS-KENT Publishing, 1992, pp.301-340.

Kazanjian, R. K.,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1, No.2, 1988, pp.257-279.

Mount, J., T. Zinger, and G. R. Forsyth, "Organizing for development in the small business," *Long Range Planning*, Vol.26, No.5, 1993, pp.110-120.

Stevenson, Howard H., Michael J. Roberts, and H. Irving Grousbeck,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Irwin, Burr Ridge,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Timmons, Jeffrey A.,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Burr Ridge,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Timmons, J. A. and H. J. Sapienza, Venture Capital : the decade ahead, in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uship*, Sexton, D. L. and J. D. Kasarda (eds.), PWS-KENT Publishing, 1992, pp.402-437.